



제22차 한일중 산업보건학술집담회, 중국 지난(Jinan)에서 성황리에 개최



제22차 한일중 산업보건학술집담회가 중국의 지난(Jinan)에 위치한 Jinan Nan Jiao Hotel 에서 5월 26일(목)~28일(토)에 개최되었다.

첫째 날에는 직무 스트레스를 주제로 Workshop이 있었고 둘째 날에는 개회식에 이어 한국에서는 '한국농업인의 안전보건'이란 주제로 Keynote Speech를 발표하였다. 또한 오전과 오후에는 Free Communication을 3 parallel로 17개의 연제를 가지고 진행하였으며 포스터 발표(35연제)가 있었다. 마지막 날에는 Aging Workforce를 주제로 Symposium을 가졌으며 Closing Ceremony에서는 한국의 전라남도 구례에서 열리는 제23차 한일중 산업보건 학술집담회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한국 측에서는 박정일 회장을 비롯해 38명이 참석하였고 일본에서는 노동과학연구소의 Kazutaka KOGI 교수 등 33명이, 주최 측인 중국에서는 63명 등 총 134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제1회 부산·울산·창원 산업보건센터 학술세미나 개최



부산·울산·창원센터는 4월 8일(금) 부산센터 5층 회의실에서 공동으로 건강진단의 질 개선을 위한 제1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건강/질병 관련 자료를 이용한 보건교육의 유용성, 40대 및 50대 소음부서 근로자들의 3년간 청력손실치, 채용/일반검진 판정기준 검토 및 표준화 등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제에는 3개 센터에서 김준연 부산 지부장을 비롯해 25명이 참석하였다.

앞으로도 센터를 순회하면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보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결의하였다.